

환율 1520원, 아직도 '서학개미'가 죄인인가

광화문·부

김신영
경제부 차장



환율이 달러당 1520원을 뚫고 올라갔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설정한 '방어선'이 1480원이었다고 했는데 한참 떨어졌다. 한 외환 시장 전문가는 "요즘 청와대에서 환율 행기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이 주도한다"고 말했다. "요즘 청와대에서 환율 행기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이 주도한다"고 말했다. "요즘 청와대에서 환율 행기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이 주도한다"고 말했다.

에 투자하면 양도세 22%를 면제해 준다. '서학개미 캠페인'도 있다. 관련 세법 개정안 통과 전인데 정부 압박으로 증권사들이 서비스를 먼저 출시했다.

투자자 반응은 시큰둥하다. 전쟁 여파로 미국 주가가 많이 내려 팔기 좋은 시점이 아닐뿐더러 1년 동안 사실상 돈이 묶인다는 부담이 크다는 평가다. 한 지인은 "이참에 해외 주식 팔아 빚이라도 갚을까 했건만 대출 상환은 대상이 아니라 해서 그만됐다"고 했다. 규정상 한국 주식·예금 등에만 넣어야 하는

전쟁에 무너진 환율 방어선 "외환 시장 변수는 중동 戰況" 정부는 왜 엉뚱한 전선에서 서학개미와 소모전을 벌이나

데, 코스피는 이미 많이 올라 부담스럽고 예금은 이자가 너무 낮아 내키지 않는다고 한다.

정부는 혹시 다시 해외 투자를 하는 '꼼수 개미'가 있을까 신경이 곤두선 모습이다. 연금을 포함한 그 어떤 다른 계좌에서도 1년간 해외 투자를 하면 세금 면제 혜택을 깎는다는 일종의 벌칙 규정을 막판에 추가했다. 면세 한도는 총 매도액 기준 5000만원으로, 주식이 두 배 올랐다면 5000만원 정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1년간 해외 투자를 금지당할 정도로 가치가 있을까. 대부분 가우뚱하다.

보다 근본적으로, 국민의 달러 자산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쪼그라뜨리는 정책이 적절하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경제에 예상치 못한 큰 충격이 발생하거나 원화가 투기 세력의 공격을 당할 때 국가의 외화 자산은 방어막이 되어준다. '국가엔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한국은행뿐 아니라 기업과 개인도 들어간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민간이 쌓아둔 외화 자산까지 포함해 국가 전체의 대외 지급 능력을 평가한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의 주식·채권 투자액은 약 2100억달러로 외환보유액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 달러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외환 위기가 닥칠 경우 '금 모으기' 대신 '미국 주식 팔기' 운동이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지 않은가. 오만 가지 변수로 움직이는 지금의 환율만 보고, 무조건 팔고 들어오라 부추기는 정책이 최선인지 깊이 생각해볼 문제란 뜻이다.

이재명 정부 내에선 지난해 내내 계엄 때 환율이 달러당 1480원대 이상은 막아야 한다는 얘기가 돌았다고 한다. 해외 주식 양도세 면제는 환율이 달러당 1480원을 넘긴즈음 공개됐다. 마음이 급했는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서학개미 캠페인'은 행정 비용 들어 몇몇 세금만 깎아주고 실효성은 없는 소모적 정책이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너무 높은 환율은 물가를 끌어올리고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커서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 엉뚱한 전선(戰線)에 가서 싸우고 있다.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625]

기계가 숨을 쉬며 움직인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인 아니카 이(Anicka Yi·1971~)가 2021년 가을 런던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테이트 모던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심 전역 공급을 위해 탱크 강변에 건설한 화력발전소였다. 1950년대 가동을 시작했다가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에너지 체계가 변화하면서 1981년 폐쇄됐다. 이후 2000년에 건물 원형을 거의 유지한 채 미술관으로 재탄생했다.



아니카 이, 에어로브, 2021년, 플라스틱, 헬륨, 온도감지카메라 등. '현대 미술: 세계와 사랑에 빠지다' 전시 전경, 런던 테이트 모던 미술관, 2021년 10월.

아니카 이는 과거 터빈이 있던 거대한 공간에 '에어로브'라 명명한 존재들을 풀어 놓았다. 반투명 구조체에 헬륨을 채우고 추진 장치를 내장해 공중에 부유하는 이들은 분명 기계 장치다. 그러나 둥근 몸체에서 촉수 같은 구조가 하늘을 흔들리며 느리게 허공을 유영하는 모습은 해파리나 버섯 포자 같은 생물체를 연상시킨다. 실제로 에어로브는 센서를 통해 관람객의 위치와 체열, 공기의 흐름, 다른 개체와의 거리 등을 감지하고, 소프트웨어가 생성한 경로에 따라 움직인다. 이들은 때로 관람객을 따라오고, 때로는 서로 모여 군집을 이루지만, 충돌 없이 미묘한 간격을 유지한

다. 말하자면 아니카 이는 기계에 감각을 부여하고,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행동을 결정하게 한 것. 이는 생명체가 몸으로 세계를 배우고 적응하는 방식을 기계적 존재에 이식한 것이나 다름없다. '에어로브'는 이처럼 한때 석탄과 석유를 태워 맹렬히 터빈을 돌리던 근대적 산업 공간 안에서, 인간과 기계, 생물과 무생물 사이의 경계를 해체한다. 아니카 이는 인간이 자연뿐 아니라 기계와도 조화롭게 공존해야 할 미래의 생태계를 사유하도록 요구한다. 포스트텍 교수·서양미술사

社說

외국인 투자 기업 60% '채용 0', 韓 경제에 보내는 신호

코트라(KOTRA)가 국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외투) 기업 2000 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7.3%가 지난해 '채용 0'이었다고 한다. 나머지도 채용하긴 했지만 그 절반 이상이 채용 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더 줄였다고 답했다. 외투 기업이 고용의 문을 닫는 것은 그만큼 사업도 축소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 시장의 매력이크고 있음을 말해주는 지표다.

외투 기업의 고용 규모는 83만여 명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특히 질 좋은 일자리가 집중된 제조업 내 고용 비율은 8.5%에 달한다. 외투 기업들의 고용·사업 축소는 이들과 협업하는 수많은 국내 중소 협력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일감 감소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는 연쇄 영향이 우려된다.

외투 기업이 채용을 축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수 경기 침체'(43.8%)였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소비 시장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음을 외부자 시각에서 짚어낸 것이다. 여기에 높은 임금

수준(33.9%)과 고용 유연성 부족(24.2%)까지 가중되면서 글로벌 자본에 '고비용·저효율' 시장으로 각인되고 있다.

특히 외투 기업의 60%가 국내에서 R&D(연구개발) 센터를 운영하며 고부가가치 창출을 원하는데도 정작 '인력의 전문성 결여'(35.8%)를 주요 애로 사항으로 꼽았다. 노동 개혁은 물론 교육 개혁도 뒤처지고 있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한 것이다. 글로벌 자본이 한국을 대신해 일본이나 동남아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일본은 엔저 효과에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을 앞세워 글로벌 기업의 생산 기지를 다시 불러들이고 있다.

외투 기업은 철저하게 경제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 경제성이 있으면 들어와서 고용을 늘리고 그렇지 않으면 채용을 하지 않고 떠난다. 이들이 보내는 신호를 단순 통계 등록으로 보고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내수 활성화와 함께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노동·교육 등의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야 글로벌 자본과 기업들이 한국에서 성장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잇단 '불법 대북송금' 녹취록 공방, 전문 공개해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민주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3년 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와 자신의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검찰의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 박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이 사건 주범으로 만들려고 압박과 회유를 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고, 이 대통령은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 회유가 사실이면 검찰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박 검사는 "녹취가 짜깁기됐다"며 반박하고 있다.

서 변호사가 공개한 것은 2023년 6월 19일 통화 녹취 일부다. 당시 박 검사는 "이재명씨가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중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거'는 당시 구속 상태였던 이화영씨를 석방하는 보석 등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 전 근거로 검찰이 이화영씨를 회유해 거짓 자백을 유도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이화영을 단순 뇌물죄의 중범으로 의음해달라'고 무리한 제안을 해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 상태로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통화 녹취가 이뤄진 것은 이화영씨가 검찰에서 "쌍방울의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비용 대납을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

한 직후다. 이미 이런 진술이 나왔는데 검찰이 이화영씨를 회유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특히 그때는 가만있다가 3년이 지나서 녹취록 일부를 공개한 서 변호사는 지금 민주당 소속으로 청주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다.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의문을 없애 방법은 간단하다.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 된다. 박 검사도 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핵심적인 부분들을 조금씩 공개하겠다"고 한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대북 송금 연루 의혹과 관련한 중대한 사건이다. 민주당 주장대로 녹취록이 허위 자백의 증거라면 공개를 미룰 이유가 없다.

민주당은 앞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면회 온 회사 관계자에게 "이재명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는 구치소 녹취록을 들어 '조작 기소'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이에 대해서도 "짜깁기"라고 했다. 이 녹취록은 법무부가 작년 9월 이화영씨가 제기한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을 조사하면서 확보한 것이다. 민주당 주장이 확실하다면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녹취록도 아직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먼저 각종 녹취록 전체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의사 1만5000명이 피부 시술 중, 피부과 전문의의 5배

대한피부과의사회가 국내 피부과 전문의는 2950명인데 피부 진료료를 표방하는 동네 의원은 1만5000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피부 미용 시술을 하는 의사 중 다수는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시 생각해보면 적어도 의사 1만 5000명이 피부 시술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1만5000명이면 5년간 의대(정원 3058명) 졸업생 숫자다.

의사 부족으로 분초를 다루는 응급 환자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응급실만 아니라 지역·필수·공공 의료 분야에서 의사가 부족해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몇 년 전쯤 끝내 의대 정원을 2031학년도까지 연평균 688명 늘리기로 했지만, 의대 졸업생들이 대거 피부 미용 시술하는 것으로 빠져나간다면 의사 부족 현상이 개선되기 어려울 수 있다.

피부과의사회는 "선진국처럼 의대 졸업 후 2~3년간 임상 수련을 거친 의사에게만 독립 진료권을 부여하는 '개원 면허제' 도입

이 시급하다"고 했다. 거기서 그칠 일이 아니다. 점 빼기 등 간단하고 반복적인 미용 시술은 간호사와 레이저 치료사 등이 교육을 받고 자격을 얻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국은 간호사가 보톡스나 필러, 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고, 미국도 일부 주에서 간호사·레이저 치료사가 미용 의료로 하고 있다. 일본도 간호사가 의사 관리하에 제모 등 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다. 한국에선 의사만 할 수 있다. 그것도 피부과 전공 만이 아니라 모든 의사가 다 할 수 있게 해놓자 기업형 미용 의원들이 신참 의사를 채용해 시술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은 우리나라처럼 젊은 의사들의 미용 의료 진출이 활발하지 않다. 필수 의료에 대해 확실히 보상이고 미용 의료에 대한 의사 독점을 없애기 때문이다. 우리도 간호사 등이 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하고 의사는 의사가 해야 할 질병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미국 최대 보수주의 정치행사 CPAC 연례 총회

단독 초청 연설 황교안, 5개항 결의문 트럼프-미 의회에 채택 요구

뉴데일리 newdaily.co.kr

한국 정치인 중 메인 스테이지 첫 등단 국힘 장동혁, 안 간 건가 못 간 건가? 1974년 첫 총회부터 미 공화당 대선 후보 등용문



▲ CPAC 메인 스테이지에 초청받아 연설을 시작하는 황교안 자유와 혁신 당 대표. © 황교안TV 화면 갈무리

레이건-부시-트럼프 뒤, CPAC 있다

3월 26~28일, 미 텍사스주 그레이프하버. 세계 최대 규모 보수주의 정치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례 총회. CPAC은 1974년 미국보수주의연합(ACU) 주최로 창설됐다. '공화당 대선 후보 등용문'이자 '보수 진영의 가장 영향력 있는 행사'이다. 미국 및 전 세계 보수 지도자-정치인-시민활동가-언론인 등이 모여 자유·안보·경제-종교적 가치-국제연대 등 보수 의제를 논의한다. 창립총회 연사인 레이건 전 대통령을 비롯 트럼프 대통령, 부시 전 대통령, 펜스 현 부통령, 펜스 전 부통령 등이 CPAC 무대에 섰다. 성공하려면 CPAC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참석자 대상 차기 대선 조사는 보수 민심의 주요 지표. 올해는 펜스 부통령이 50% 이상 압도적 1위.

각각 정성과 세계 보수 지도자들도 초청, 글로벌 보수 운동의 중심점이 되고 있다. 영국 보수당 출신 리즈 트러스 전 총리, 이란의 마지막 왕세자였던 레자 팔레비 등이 참석했다.

양국 부정선거 의혹 한미 공동조사 제기

한국에서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 대표가 초청됐다. CPAC 메인 스테이지에서 한국인이 공식 연사로 단독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았다. 미국 보수가 주목하는 우파 정치인은 국힘 정치인들이 아니라, 황 대표라는 말이 나온다. 그렇지 않다면, 원의 정당 대표에게 CPAC 등단 기회를 부여했을 리 만무하다.

황 대표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함께 침해받고 있다"고 했다. "공산화가 거의 이뤄졌다. 법치가 무너지고 삼권분립이 붕괴됐다. 부정선거 언급하면 징역 10년까지 처벌법이 만들어졌다. 교회 폐쇄법까지 추진되고 있다."

그는 5개 항 결의안 채택을 트럼프 대통령과 미 의회에 공식 요청했다. ① 윤석열 대통령 즉각 석방 촉구 결의 ② 사 이버 선거 시스템 해킹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즉각 개입 ③ 베네수엘라 브라질처럼 한국 부정선거 관련자 미 정부의 직접 제재 ④ 한미 양국 부정선거 의혹 공동 조사단 구성 ⑤ 한미 동맹 수호 결의 황 대표는 한미 동맹의 전통적 구호인 "We Go Together"로 연설을 마친 뒤 트럼프의 오랜 측근이자 미국 보수 풀뿌리 운동의 상징적 인물 마이크 린델(Mike Lindell)과

회동을 가졌다. 린델은 침구 전문 기업 마이필로우(MyPillow) 창업자. 2020 미국 대선 이후 선거 시스템의 전산적 조작 가능성을 집요하게 제기했다. 린델 TV를 운영하며 수백만 명의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십 차례 유세에서 사진 연설자로 나선 측근 중의 측근.

린델은 약속했다. ① 자신의 사이버 전문팀으로 한국의 선거 전자 조작 의혹 조사 직접 진행 ② 황 대표와 원격 인터뷰 정기 진행 ③ 린델 TV 통해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 미국 시청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보도 ④ 관련 내용 백악관에 전달

CPAC 공식 결의문, 한국 직접 겨냥

CPAC은 《민주주의 퇴보 및 자유 사회에 대한 법적 공세에 맞서 싸운다》는 결의안에 한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CPAC 이사이자 트럼프와 가까운 고든 창 변호사가 발의하고 CPAC 이사진과 참석자들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국공산당의 해외 침략 증가부터, 사회주의-권위주의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서의 반체제 인사 탄압, 검열, 정치적 박해, 법적 공방, 야당 지도자 무력화, 선거 조작, 헌법 기관 내부에서 약화시키는 행위들에 이르기까지, 자유 그 자체가 조직적 공격을 받고 있다... 한국-대만 같이 공산주의 정권과 그 대리 세력으로부터 지속적 압력을 받고 있는 최전선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해, CPAC은 우려를 표명한다... 어떤 패턴을 발견하고 있다. 선출된 지도자들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화된 법적 절차를 통해 조사-검열당하거나 제거됐다... 트

럼프 대통령과 동맹국 정부, 자유를 사랑하는 전 세계 시민들이 이런 위협에 맞서 싸울 것을 촉구한다."

CPAC 주최 ACU 의장 맷 슬랩. "보수소나루 브라질 대통령과 유선열 한국 대통령의 투옥처럼, 정치가 법적 사투(legal death match)로 변질, 패하면 정치 직위뿐 아니라 자유까지 잃고 있다."

국내 언론, CPAC 애써 흘다

CPAC에서 이재명 정권은 부정적인 의미로 주목받았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좌의 전체주의적 노예로의 길》에 대한 우려다.

원의 정당 자유와혁신은 15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국힘은 단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거나 못했다. 미국 CPAC과 비슷한 성향의 당원 혁명에 의해 장동혁 당 대표 선출 뒤 지지율이 올랐던 국힘이다. 그런데 《결의문》 갈등, 이정현 위원장의 공천 참사 등으로 우파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지지율이 급락 중이다. 국내 언론들도 CPAC 보도를 축소-왜곡하고 있다.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

권순환 객원 칼럼니스트 권순환TV 대표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6년 3월 29일 게재 되었습니다.